

제주도 구비문학 속의 여성, 연구자의 시각 들여다보기

- 설화, 민요, 속담을 중심으로 -

문순덕 (제주연구원)

I. 머리말

구비문학은 구전되는 문학으로 설화, 민요, 무가, 속담, 수수께끼, 민속극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은 당대 사람들의 생활문화 전반이 응축되어 있어서 기록문학의 공백기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선택되어 왔다.

한편 페미니스트들은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위상,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 여성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한 제주도 구비문학 연구물을 통해 연구자의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이념운동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하여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1960년대 서구사회에서 여성주의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성들도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여성문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문학작품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성들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 페미니즘 이론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작가의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도 여성들의 자주적, 저항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나타난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운동이 부각되면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구비문학 등 학문 분야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언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제주사회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물¹⁾이 발간되었으며, 2010년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소강상태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주의 시각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동안 우리들이 외면했던 여성들의 인권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여성사, 여성문화 등에 관심을 갖는 개인과 단체들이 재등장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연구에 도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0년 1월에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에 의한 접근과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 이 부분은 문순덕(2009b/2018) 참조.

여타의 연구성과들과 활발한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한국고전문학과 여성문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가 창립되었다. 이 학회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여성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문²⁾은 제주도 구비문학 중에 설화, 민요, 속담 등을 분석 범위로 정하고, 최근까지 발표한 연구물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다만 모든 연구물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대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연구물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검색하였다.³⁾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자료는 42편(설화 28편, 민요 10편, 속담 4편)이다.

우리들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관념화된 관점으로 여성 인물의 행적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 때 여성을 규정한 어휘들이 여성어인지 남성어인지 등 성별어(性別語)⁴⁾의 관점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주 구비문학으로 살펴본 여성의 위상

1. 설화

가. 신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한 신화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인 여신들이 남신과 비교하여 신격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지, 신으로 좌정하기까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또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여신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시각은 제주도 무속신화 분석에도 적용되었다. 반면 여신들의 위상을 분석할 때 남성과 여성의 특징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제주 여신들의 도드라진 행동을 여성성이라는 이름으로 부각한 측면도 있다.

제주도 무속신화⁵⁾는 ‘본풀이’로 알려졌으며, 무가(巫歌)는 굿 의례를 집행할 때 무당이 부르는 노래나 사설을 뜻한다. 여기서는 제주도 무속신화를 다룬 논문 중에 여성신의 성격이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연구자의 시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본풀이 중에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차사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송당계본풀이’등을 다룬 논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신들의 활약성과 성격, 특징 등을 추출하여 남신과 비

2) 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의 주제인 “해방 이후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중 여성 분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발표자에게 주어진 분야가 포괄적이어서 구비문학으로 한정하였다.

3) 구비문학 중에 ‘제주 설화, 민요, 속담’ 등을 검색한 후 여성주의 시각을 살필 수 있는 목록을 추출하여 본문에서 분석 자료로 삼았다.

4) 사회언어학은 인종, 지역, 성별, 계층, 연령 등에 따라 언어 변화 요인을 다룬다. 여기서 성별에 따른 언어적 특징을 성별어(성별방언, 성별언어)라고 한다. 특히 남성이 쓰는 말(발화어)이나 남성을 지칭하는 말(대상어)을 남성어라고 하고, 여성이 쓰는 말이나 여성을 지칭하는 말을 여성어라고 한다.

데보라 태년(2001 : 269)에 따르면 여성어란 “하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단어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여성들을 향해 사용하는 언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5) 무가를 문학 장르로 구분하면 서사무가(敍事巫歌), 희곡무가, 서정무가, 교술무가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서사무가는 문학성이 강한 편이다. 제주도에서는 신의 내력을 풀이한다는 뜻으로 ‘본풀이’라고 하며, 무속신과 관련이 있는 뜻으로 ‘무속신화’라고도 부른다.

이 글에서는 무속신화를 다룬 논문을 설화(신화, 전설, 민담)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교하거나 여신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사랑을 찾아 부모의 안전한 보호막을 벗어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서경림 1998, 좌혜경 1998, 권복순 2010, 박종성 2016).

자청비는 대체적으로 자유와 사랑의 아이콘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자유와 사랑은 남성이 주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남성 이대올로기의 관점으로 보면 여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자청비의 적극적 행동에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한다. 또한 자청비는 남장을 하여 남성들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때 남성과 겨루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살필 수 있다. 반면 자청비가 남편인 문도령을 살려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역할로 규정한 것은 여성의 소극적인 태도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문전본풀이」의 주인공인 노일저대귀일의딸은 계모의 전형으로 바라보고, 처첩간의 갈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악한 여성의 상징으로 규범화하고 있다(길태숙 2009, 이지영 2006, 정진희 2017). 이는 다분히 남성중심사회의 고정관념이 구비문학 분석의 주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부인(여산부인)은 고난을 극복하고 그 대가로 조왕할망으로 추앙받는다라는 선악의 대결로 귀결되는데, 이는 남선비의 행동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처첩간의 갈등으로 유도하는 남성주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하기까지는 아들의 헌신이 절대적이었음도 보여주고 막내아들이 문신으로 좌정(남선비가 문신으로 좌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음)한 것을 보더라도 이 신화는 남성신 중심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문전본풀이」와 아류로 전승되는 전설 등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선비와 여산부인, 노일저대귀일의딸 등의 행적을 신들의 역할과 권리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의 의무,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 가족의 범주로만 살펴보게 되면 조왕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여성신의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다.

「삼공본풀이」의 주인공인 감은장아기의 주체적 삶을 다룬 연구들은(한창훈 1998, 하경숙 2016)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의 소유자로 관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감은장아기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아 집을 떠나는데 방점을 두는 것 같다. 이는 여성은(결혼 전)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남성중심사회임을 인정하고 그 규범을 일탈한 감은장아기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 듯하다. 물론 감은장아기의 적극적인 행동에 비해 두 언니(은장아기, 늦장아기)는 부모와 사회 질서에 순종적인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같은 여성이면서도 여성신의 다른 점을 보여준다.

권복순(2012)에서는 여성 주인공들이 기존의 주류사회와 대립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을 접목하고 있다. 이 또한 남성중심사회를 기준에 두고 자청비와 감은장아기의 자주적 행동, 외부문화와 충돌 등을 다루었다.

한편 「초공본풀이」를 비롯한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여신들을 신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당연하게 관찰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 고통의 강도가 높다는 해석도 있고(신연우 2013), 여성의 삶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여성신을 관찰함으로써 자청비는 아내의 자리 획득, 자지맹왕아기씨는 온갖 역경을 헤치고 무조신을 만든 어머니의 역할에 방점을 둔 시각도 있다(이유경, 2012).

김순이(2001)에서는 문화영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여신들(벽랑국 세 공주, 설문대할망, 자청비, 영등할망, 백조할망)의 활약상을 통해 영웅신의 면모를 찾고 있다. 즉 남성 이대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신화를 재해석하였다.

김정숙(2002)에서는 제주 여신인 자청비와 가문장아기, 백주또, 원강암이, 강림의 큰부인, 노일저대귀일의 딸 등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이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여성의 자주적인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다.

문순덕(2009a)에서는 제주도 문헌신화인 삼성신화의 주인공인 세 공주들, 무속신화의 주인공인 자청비

(세경본풀이), 백쫓도(송당 본향당신), 삼승할망(삼승할망본풀이) 등과 전설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설문대신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신의 위상을 찾아보고자 했다. 삼성신화에서 세 왕자는 신격화되어 있는데, 세 공주는 신의 배우자로만 등장하고 제주도 모신(母神)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오지 않는다. 자청비는 '신의 출생→성장→용감한 도전→여성으로 회귀→인격화→농경신으로 좌정'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문도령(남신)에 예속되는 여성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또한 백쫓도와 소천국의 별거는 부부 공동의 국가 통치에서 분리 통치 시대의 도래로 보았다.

이 외에도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여성 신화의 여러 양상을 다룬 연구에는 이수자(1996), 조현설(2003), 강진옥(2005), 양영수(2011), 이유경(2012), 류정월(2013/2015), 전영준(2016) 등이 있다. 제주도 무속신화의 주인공인 여신들이 유교적인 덕목들을 타파하는 행동이나 남성중심사회에서 저항하는 여성상을 도출하고, 유교사회의 제도를 거역하는 능동적인 행동의 소유자로 규정하기도 한다(표정옥 2011, 김영주·이석주 2017)).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여신들은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고 활약하다가 남신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종속되는 삶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여신이 먼저 등장한 후 남신이 등장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여신은 죽거나 아내로 역할 축소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무속신화에서 기자치성을 드릴 때 기도제물의 무게에 따라 백을 온전한 수로 정하고, 아들(남성)을 기준점에 놓은 후에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딸(여성)이 태어났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신화들은 남성중심사회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신화 들여다보기는 언어와 사회제도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제주 신화 연구물에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중심 사회에서 규범화된 여성에 대한 진단을 과감히 해체해 보고 여성의 주체적 입장에서 살펴보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속신화 연구 제목을 보면 '여신, 여성신, 여성신화, 여성성' 등 여성대상어를 강조하는 어휘가 보인다. 이는 여신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신과 비교 대상으로 남성신화, 남성신 등을 선택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신은 남신이고 그에 대응되는 여성을 지칭할 때는 여신 또는 여성신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이는 남성중심사회에서 기준점에 남성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무속신화를 연구할 경우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을 할 때 성별어의 관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여신과 남신을 구분하는 기준만이 아니라 신화 내용에서 여신과 남신의 행적 등 모든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이 가능하다.

어떻든 우리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신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제주도 신화도 도·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제주도 신화가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 확인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제주도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를 신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나. 전설

제주도 전설은 인물전설, 신앙전설, 풍수전설, 자연전설, 지명전설, 역사전설 등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며 채록된 자료 편수도 많은 편이다. 다만 여기서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전설 관련 연구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설문대는 신화로 접근할 때는 설문대신/설문대신화라고 하는데, 전설적인 요소가 많다는 입장에서 설문대전설로 다루기도 한다. 그래서 제주도 전설 분야에서는 설문대를 논의한 연구물이 중심을

이룬다.

허 춘(1996)에서는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전설과 민담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 여성의 특징으로 ‘巨女, 力士, 妻妾, 繼母, 姑婦, 寡婦’등을 들고 있으며 이 유형에 따른 설화를 예로 들었다. 또한 무속신화에서는 자청비의 진취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감은장아기는 도전정신은 있지만 자청비에 비해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힘센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전개가 없는데 이는 남성중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설화 중에 설문대할망은 신화와 전설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설문대를 창조적 여신으로 명명하면서 한국의 마고할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중국의 거인신화와 비교하는 관점이 있다(허남춘 2013). 이 외에도 설문대의 창조정신을 제주도 교육이념에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장영주 2012) 등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문순덕(2009a)에서는 설문대신은 제주의 자연을 창조하였고, 제주도 물의 깊이를 실험해 보는 등 도전정신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그런데 설문대신의 활약상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자연물을 빨래터로 이용하기, 속옷을 입으려는 인간적인 욕망, 자식(아들) 양육하기 등 여성의 일상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제주를 창조한 신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여성으로 전해오는 관점을 다루었다.

제주 여성의 특징으로 분류한 어휘 중에 巨女로 지칭되는 설문대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는 여신을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거구라는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남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평가 항목을 설문대에게는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전설에 등장하는 처첩과 계모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절대여성어⁶⁾이다. 처첩이란 어휘가 쓰인 것은 축첩제도를 인정한 사회제도임을 엿볼 수 있으며, 첩은 여성비하어의 대표격이라 할 만하다.

또한 전설에서 계모가 등장하는 것은 남성의 재혼이 허락된 사회이고, 그 계모 역할을 맡은 여성의 성품이 악덕하게 그려진다. 간혹 전혀 자식의 교육에 힘쓴 훌륭한 계모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속의 계모는 악행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처첩과 계모가 나오는 전설을 남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성의 위상은 가정의 틀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

제주도 전설에는 열녀, 효자, 효부, 과부, 악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여성 장사 등 여성대상어로 쓰이는 어휘들이 보편적이다. 앞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전설을 분석해 보고 남성어의 특징과 비교해 볼 만하다.

제주도 민담은 세속담, 본격담, 소담, 동물담, 원혼담 등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하며 채록된 자료는 많은 편이다. 도깨비담을 다른 연구는 있는데, 제주도 민담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드문 편이다.

2. 민요

제주도 민요 중에 여성 노동요가 많은 것은 제주 여성들이 밭일과 바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말해준다. 노동요를 다른 연구물들은 민요 사설에 나타난 어휘들을 통해 그 사설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현재 삶의 고달픔, 시집살이의 애환, 여성 가장의 의무, 남편의 무능함, 경

6) 민현식(1997 : 541)에는 절대여성어란 여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어휘이고, 절대남성어는 남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어휘로 구분하였다. 또한 상대여성어는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서 더 쓰이는 어휘이고, 상대 남성어는 그 반대의 의미이다. 이에 비해 통성어는 남녀 두루 비슷하게 쓰이는 어휘를 가리킨다. 따라서 여성대상어는 절대여성어와 상대여성어를 포괄한 의미로 사용하고, 남성대상어는 절대남성어와 상대남성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제적 책임 등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여성의 울타리는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남성(남편)이 가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남성 이대올로기의 관점이다. 즉 노동요 사설이 애잔하더라도 여성의 위상이 비극적이고 한스럽다는 다분히 고전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분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노동요 중에서도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사설 분석을 통해 근면, 자립, 시집살이, 신세한탄, 생활고, 사랑 등 여성들의 역할을 관찰하고 있다(김영돈 1980/1982, 한창훈 1999, 김수정 2008).

맷돌과 방아는 곡식을 장만하는 정미소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여성 노동요로 ‘맷돌.방아노래’가 핵심인 것은 제주 여성들의 노동 참여 정도를 알게 해 주며, 노동요 사설을 통해 여성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물론 여성들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정당화하는 정도이다.

오출세(1981)에서는 여성들이 부르는 부요(婦謠) 중에서도 첩의 노래와 과부의 노래를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여성어인 부요, 첩, 과부 등을 사용한 것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요 사설은 첩을 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처가 첩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집살이 노래(양영자, 1992)와 삼승할망이 민요에서도 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양영자, 2012)을 보여준다.

해녀노래⁷⁾는 해녀들이 뱃물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사설에는 해녀들의 목숨 건 물질, 신세 한탄 등 여성으로서 힘든 노동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녀노래의 주인공들은 당연히 여성이므로 이들을 굳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해녀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에서 제주사회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자원 제공자라는 사실까지 확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노동요를 다룰 때 여성들 앞에 놓인 열악한 노동환경, 경제적인 무게 등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제주 사회를 이해하게 한다. 그러면서 제주 여성들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는 강인함, 근면함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요에서도 제주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풍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민요를 통해 제주 여성들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며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의 여성들도 이런 자질을 지녀야 할 것 같은 위기감을 지니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민요라는 한 대상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위상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제주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남성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역사.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속담

언어는 문화의 주요소이므로, 제주방언은 제주 사회의 제 요소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며, 여성의 생활문화 분석에도 유용하다. 이에 여성어의 쓰임을 통해 사회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성별어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페미니즘 시각에서 언어가 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속담은 성별어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재환(1981)에서는 제주도 여성속담 중에 여성들이 남편(남성)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근면하고 자립심이 강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동서, 고부, 계모, 처첩 등 여성들 간의 갈

7) 해녀노래 사설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변성구(2006)와 이성훈(2005/2010)이 있다.

등 양상을 보여주는 속담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여성대상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은 물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화됨을 보여준다.

- ① 소나이 잘못 만나면 죽 삼시 메 삼시(사나이 잘못 만나면 죽 세 끼, 메 세끼)
- ② 씨앗 새에 곤말 시랴.(시앗 사이에 고운 말 있으랴.)

또한 고재환(2013)에서는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속담 일체를 기록화하여 주제별 연구 자료로 제공하였다.

문순덕(2002)에서는 제주도의 세시풍속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특히 정월과 이월에는 여성들이 남의 집을 함부로 방문하지 못한다는 행동제약을 통해 성차별적 언어 사용이 만연되어 있음을 다루었다.

- ③ 정월 초하룻날 여자 놈의 집이 안 간다.(정월 초하룻날 여자 남의 집에 안 간다.)
- ④ 셋절 드는 날 여자가 놈의 집이 찾아가지 말라.(입춘에 여자가 남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

문순덕(2004/2012에 재수록)에서는 제주 속담 중에 여성과 관련이 있는 속담⁸⁾을 추출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정도, 속담에 나타난 여성의 위상, 그 속담을 인지하는 여성들의 태도 등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이 글은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속담, 여성들(특히 아내와 어머니)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속담 등을 제시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을 다루었다.

여성을 다룬 속담을 보면 여성의 사주, 여성의 운명, 여성의 행동 제약, 처첩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등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 ⑤ 여잔 동산드레 돌아앉앙 오줌 싸도 치메깍 젓는 중 몰른다.
(여자는 동산으로 돌아앉아서 오줌을 누워도 차마끝이 젓는 줄을 모른다.)
- ⑥ 지집년이 공부허영 뭐 혈티, 일만 잘허믈 뉘주.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래, 일만 잘하면 되지.)
- ⑦ 예펜네 한숨 쉬지 말라.(여편은 한숨 쉬지 말라.)

한편 여성의 근면함을 긍정적으로 다룬 속담도 있고, 일생의례(출산, 혼인 상.장례, 제사 의례)에 따라 여성들에게 강요된 역할과 행동 금기를 요구하는 속담도 다루었다.

제주도 속담을 유형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여성과 남성의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사회제도와 가치관 등 당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Ⅲ. 맺음말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제주도 구비문학(설화, 민요, 속담) 연구물을 통해 여성들의 위상과 사회적 지

8) 여기서 여성 속담은 여성을 언급하거나 여성의 행동을 가리키는 등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위,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 등을 확인해 보았다.

제주도 구비문학 연구물 중에 여성주의 시각으로 들여다 본 것은 1980년대 5편(설화 1편, 민요 3편, 속담 1편), 1990년대 6편(설화 4편, 민요 2편) 2000년대 12편(설화 7편, 민요 3편, 속담 2편) 2010년대 19편(설화 16편, 민요 2편, 속담 1편) 등 42편 정도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무속신화 중에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가 23편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주의 이론이 학문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여성주의 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연구자의 관점도 이쪽으로 이동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연구자들의 접근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연구물을 토대로 하여 구비문학에서 제주 여성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속신화의 단골 주제인 자청비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고, 감은장아기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수용했다는 점, 여산부인은 조강지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들들의 효도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남성중심사회의 가치관으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이는 연구자가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적어도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여성들의 활동을 다루는 연구라면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하다. 따라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구비문학을 연구할 때는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성 차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이경하, 2006).

무속신화에서 여신들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대체로 남성의 행동과 비교하여 용기 있는 도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립하기, 남성과 동등하게 대결하기 등 여신의 진취적인 행동도 결국은 남성의 행동이라 규정된 특징과 비교하고 있다. 즉 남성과 비교하여 이 여신들의 행동이나 성격이 보통의 여성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여신이기에 때문에 좀더 특출한 요소를 찾아보기 위하여 남성신과 비교하거나 다른 지역(국가 포함) 여성신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여성신의 본래적인 성격으로 들여다보기가 필요하다.

제주도 구비문학 중에 무속신화는 물론 전설, 민요, 속담 등을 분석할 때 단순히 여성의 특성을 추출해 보거나,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의 쓰임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주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주의 연구라고 할 때는 구비문학 자료에서 여성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속에 그려진 여성들의 위상, 그들을 가리키는 어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제도, 남성들과 비교하여 수평적인가, 예속화되어 있는가 등 성 차이는 인정하지만 성차별을 배제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제주도 구비문학 장르 전반에 걸쳐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 동향 분석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남성주의 시각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구비문학에서는 제주도 여성과 남성의 위상, 역할 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현 옮김, 마리아 야겔로 지음, 1994, 『언어와 여성-여성의 조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여성사.
- 강진옥, 2005,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0, 307-345.
- 고재환, 1981, 「제주도의 여성속담」, 『국어국문학』86, 254-276.
- 고재환, 2013, 『개정증보판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 권복순, 2010, 「자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16, 191-215.
- 권복순, 2012,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51, 189-218.
- 권태효, 2011,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23, 7-30.
- 길태숙, 2009,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9집, 327-362.
- 김수정, 2008,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교육학석사논문.
- 김순이, 2001,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신들」, 문화예술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찬,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 김영돈, 1980, 「제주도 민요 맷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 82, 23-52.
- 김영돈, 1982, 『제주도 민요 연구 : 여성 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이석주, 2017,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6, 332-356.
- 김정숙, 2002,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도서출판 각.
- 류정월, 2013,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30, 193-219.
- 류정월, 2015, 「무속신화의 젠더화된 죽음관과 위무의 두 가지 방식-바라공주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5, 69-90.
- 문순덕, 2002, 「세시풍속에 나타난 제주 여성 속담」, 『반교어문연구』 14, 37-48.
- 문순덕, 2009, 「제주의 창조여신들」,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 2012, 『제주여성 속담의 미학』(『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 의례』, 2004 재수록), 민속원.
- 문순덕, 2018, 「제주 여성 생활문화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문학과 예술』 25, 221-251.
- 민현식, 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
- 박종성, 2016, 「여신 자청비의 노정기와 역할 대리자-체칭, 고아 선녀, 황우양 부인, 제우스와 견주어」, 『구비문학연구』 43, 67-98.
- 변성구, 2006, 「해녀노래의 사설과 유형 구조」, 『한국언어문화』29, 55-80.
- 서경림, 1998, 「제주 신화와 여성의 위상-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4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1-11.
- 신연우, 2013, 「제주도 신화와 ‘고통’의 문제-〈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37, 207-236.
- 양영수, 2011,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탐라문화』38, 109-156.
- 양영자, 1992,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탐라문화』12, 41-101.
- 양영자, 2012,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승할망」, 『한국민요학』36, 237-273.
- 오출세, 1981, 「민요에 나타난 여성: 제주도 부요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33, 311-324.
- 이경하, 2006,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여성문학연구』16, 7-30.

- 이성훈, 2005,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 이성훈, 2010, 『해녀 노젓는소리연구』, 학고방.
- 이소영 옮김, 로즈마리 퍼트남 통 지음, 2000,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 이수자, 1996,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 인식 (2)」, 『이화어문논총』14, 25-40.
- 이유경, 2012,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탐색의 양상과 의미-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1, 187-212
- 이지영, 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나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199-233.
- 장영주, 2012, 『설문대신화에 나타난 교육이념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전영준, 2016,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신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60, 499-531.
- 정명진 역, 데보라 태넨 저, 2001,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한연.
- 정진희, 2010,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5-42.
- 정진희, 2017, 「제주도 무속 신화 <문전본풀이>의 가부장제와 ‘어머니로 살기」, 『국문학연구』 35, 149-182
- 조현설, 2001, 「설화 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 239-270.
- 조현설, 2003,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455-487.
- 좌혜경, 1998,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30호, 181-199.
- 표정옥, 2011, 「한국 여성 신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욕망과 문화적 의미작용 연구-제주도 무속신화 속 여성의 현대적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6, 387-413.
- 하경숙, 2016,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온지논총』 48, 63-83.
- 한창훈, 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15, 85-112.
- 한창훈, 1999, 「제주도 민요와 여성: 특히 ‘잠수(潛嫂)’의 생활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81-98.
- 허남춘, 2013,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일본·중국 거인신화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42, 101-136.
- 허춘, 1996,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고」, 『탐라문화』16, 1-18.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